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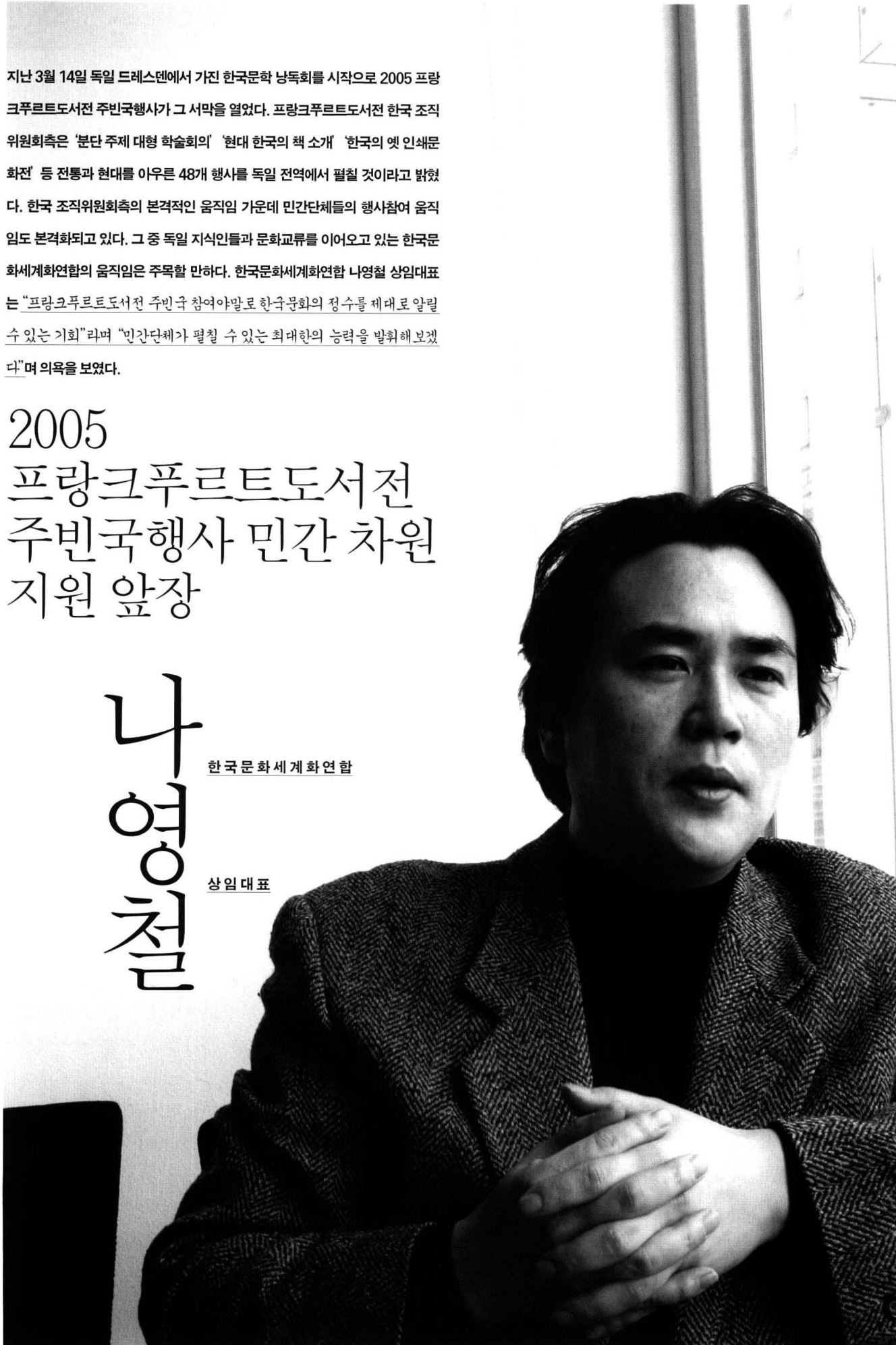
지난 3월 14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가진 한국문학 낭독회를 시작으로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행사가 그 서막을 열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 조직위원회측은 '분단 주제 대형 학술회의' '현대 한국의 책 소개' '한국의 옛 인쇄문화전'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 48개 행사를 독일 전역에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조직위원회측의 본격적인 움직임 가운데 민간단체들의 행사참여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 독일 지식인들과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문화세계화연합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문화세계화연합 나영철 상임대표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참여야말로 한국문화의 정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민간단체가 펼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보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행사 민간 차원 지원 앞장

# 나영철

한국문화세계화연합

상임대표



## 독일 지식인들과 한국문화 교류, 볼프강 에를 씨 앞장

“독일에서는 10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와 도교 등 동양사상에 심취한 독일 지식인들은 살아 있는 선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을 인식하고 있지요. 그들과의 교류는 ‘포네스에스’란 이름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교수, 언론사 관계자 등 14명의 회원과 함께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포네스에스 회원 가운데 나 대표는 유일한 한국인이다. 나 대표는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안했던 쪽은 독일 회원들”이라며 “한국인 이상의 애정을 갖고 그들은 한국 문화 알리기에 주력했는데, 그 중에서도 볼프강 에를(Wolfgang Erb) 씨의 노력은 각별했다”고 전한다.

에를 씨는 ‘나누어진 하늘 남과 북’이란 프로젝트를 기획, 아르테 TV <목요저녁테마> 프로그램에 한국과 관련한 여러 영상물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남북한도시와 유럽도시 간의 자매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당시 독일출판협회장이었던 바하 씨와 친분이 있었던 에를 씨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 주빈국 추대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과를 알리는가 하면, 독일 가르미슈 파텐키르헨에서 개최된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바하 씨의 관심을 증폭시켰지요. 아직 덜 알려진 한국출판물을 유럽에 알리며 한국출판문화의 우수성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문화히딩크라 불릴 만하지요.”

## 퇴계관, 원효관, 여성관 설치 계획, 중장기 사업도 추진

실제로 양국을 잇는 국제적 후원사업으로 발전하기까진 나 대표의 역할이 크다. 조직위원회측의 주빈국 행사 추진 과정을 지켜보던 나 대표는 뜻을 함께하는 한국 회원들을 추가 영입, 지난 3월 1일 한국문화세계화연합이란 이름으로 포네스에스의 성격을 새롭게 다듬었다. 그리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에 대한 민간 차원의 후원을 공표했다.

이전부터 사업을 구상해 왔던 나 대표는 한국문화 각 부문에 정통한 여러 단체들과 교섭, 한민족아리랑연합회, 한국어세계화재단, 퇴계학연구원, 한국건강연대 등으로부터 동참 의사를 끌어 내기도 했다. 주빈국 행사 지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지인의 추천으로 한독친선회를 이끌고 있는 루트빅 스트라우스 김씨를 찾아 경남 독일마을을 한달음에 달려가기도 했다. 나 대표의 계획을 전해들은 김씨는 그 자리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흔쾌히 약속했다.

“도서전시장에 퇴계관 원효관 여성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퇴계와 원효는 한국정신사의 기원이라 할 만하지요. 퇴계학연구원에서는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퇴계사상은 국제적 교류와 연구가 가장 활발한 만큼 관심을 모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퇴계사상을 옮긴 고서는 물론이고, 독일어 영어 불어 등 기타 언어로 간행된 서적을 수집해 퇴계관에 전시할 것입니다. 원효관과 여성관은 구체적인 사안이 잡혀가는 중인데,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을 만

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불교연구원으로부터 참여의사를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세계화연합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기간에 진행할 프로그램 외에 독일 전역에서 펼칠 여러 가지 중장기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전할 한글인지화 사업, 구전민요 아리랑을 통해 저항과 화합이라는 민족정신을 알릴 독일 순회 아리랑공연, 한국의 전통 음식과 의복의 우수성을 알릴 바이오컬처사업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독일 순회 아리랑공연과 연계해 진행되는 한글인지화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될 행사다. 독일 순회 아리랑공연 시 독일인들의 이름이나 ‘땃’, ‘땃’ 등의 글자를 한글로 프린팅한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나 대표는 “중국어와 일본어 강좌가 활성화된 독일 문화단체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단체 한 축 이뤄 주빈국 행사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사업예산 확보는 한국문화세계화연합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행사를 진행하는 데 드는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참여단체 및 기업의 후원, 자체적인 모금활동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나 대표의 구상이다. “기업의 후원이 활발할지는 미지수지만,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독일 회원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독일의 각종 공공단체로부터 속속 참여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되었다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도 주빈국 행사가 있으면 한다’는 등의 내용이지요. 프랑크푸르트도서전뿐 아니라 베를린 아시아 태평양주간, 함부르크 축제 등 국제적 문화행사에 두루 참여해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민간 자격으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후원하는 만큼 한국 조직위원회측과 교류를 이어가는 일도 주요 사안이다. 나 대표는 “조직위원회측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더 나은 행사를 기획하고, 조직위원회 행사를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표는 지난해 조직위원회 황지우 총감독을 한 차례 만나 민간 지원 의사를 밝히며 교류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간 지원이 더욱 활발했으면 합니다. 나름의 노력에 대한 보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이미지와 결부된 국제적 행사가 아닙니까. X좌표에 정부와 출판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Y좌표에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주빈국 한국의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한국문화세계화 연합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할을 찾아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재 박용두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